

명치시대 지식인들의 조선인식

- 「연대」와 「멸시」의 갈등 속에서 -

라 의 규*

(e-mail: ulbo24@hanmail.net)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청일전쟁 모노가타리 (物語) |
| 2. 다루이 도호키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大東合邦論)』을 중심으로 | — 「時事新報」 |
| 3.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조선관
— 「탈아론(脱亜論)」을 중심으로 | 5. 「정의 (justice)」로의 길 — 「萬朝報」 |
| | 6. 나가기 |

キーワード：歴史認識(historical recognition), 朝鮮のイメージ(the modern image of Korea),
連帶(solidarity), 自己保存(self-preservation), 自己変革(self-reformation)

1. 들어가기

일본의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서양열강의 문명의 힘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한 부국강병의 길로 모색해 왔다. 그 부국강병이라는 뜻 속에는 서양열강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서 구축해 온 과정이 암시되어져 있다. 결국 일본의 근대화 과정은 서양열강의 문명의 힘을 「자기부정」¹⁾의 계기로 만들지 못한 채, 피동적인 문명화로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예를 들면, 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 숙덕대학교/동양 대학교 소속

1) 서양열강의 문명의 힘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앰파워에는 성공을 했지만, 주변 나라인 조선과 중국을 서양열강과 똑같은 방식으로 식민지화하는 것으로 내면화시켰다. 이것은 「자기보전」을 위해 타자를 수단으로 이용한 객체에 불과하다. 결국은 그 서양열강의 문명을 재해석해 타자와 연대하는 길로의 모색, 즉 「자기부정」의 계기를 만들지는 못했다.

는 서양열강으로부터 밀려오는 문명의 힘에 흔들려, 그 힘으로 에도막부 체제에 대한 위화감을 느껴 그 체제를 무너뜨리고 명치유신을 완성시켰다. 그러나 오쿠보가 지향한 「국가」는 자신들의 중심적인 가치관은 보존한 채, 부족한 부분만(=서양화)을 보충해, 거기에서 타자(=동아시아²⁾)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가 버렸다. 오쿠보 자신은 결국 「자기부정」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문명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동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 초석을 다졌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일본의 근대화에는 자신과 타자³⁾의 긴장관계와 자기 형성을 위한 격투 속에서 서양열강 문명의 침입에 저항하는 과정으로서의 변용이 확실히 존재하기도 했다. 즉, 에도 말기 일본으로 밀려오는 서양 열강의 문명의 힘으로부터 위기감을 느끼며 먼저 서양의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이다. 단, 서양 열강의 문명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인접 국가를 침략해 식민지화하려는 패권주의가 아니라 동아시아와의 관계를 재건축함과 동시에 연대해 서양 문명에 저항하려는 정신이 맞물리면서 서로 대립하여 다투는 과정의 사상들이 살아 있었던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현재에 있어서 한·일 간을 둘러싼 「식민지=근대」의 해석에 있어 역사인식의 큰 골을 좁히기 위한 하나의 힌트로서 「자기보전」에서 「자기변혁」으로의 사상적 전환⁴⁾에 실패한 일본의 과도기적 시대를 보다 역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단일화적인 우리들의 역사인식을 보다 다양화된 역사인식으로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일본의 명치시대 이후의 근대화를 재조명하는 것은 서양 열강에 의한 자신들의 식민지화를 「자기보전」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절대적 타자인 조선⁵⁾을 표상해

2) 본 논문에서는 역사적/정치적 관점에서 중국·한국·대만 세 국가에 한정지어 말함.

3) 여기에서의 타자는 일대일의 관계성 속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4)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논리만으로 타자와 관계성을 맺는 것은 타자를 자신의 식민지화로 하는 것과 동등한 것으로 필자는 해석한다. 여기에서 우선, 「자기부정」을 통해 타자와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 즉, 「자기변혁」을 통해 타자와의 연대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페러다임 전환을 위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명치 시대는 서양의 근대화 압력으로 인해 「자기보전」에서 「자기변혁」으로의 활로를 만들었으나, 결코 그것은 조선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자기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신들의 엠폰워(empower)를 통해 서양과 똑같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필자는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변혁」을 통해 타자와의 연대를 창조해 가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국호표기는, 1948년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전은 「조선」이라고 표기한다. 1897년부터 1910년까지는 대한제국이다.

은 역사를 극복한 일본의 사상가들의 고난이 존재했다는 것도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2. 樽井藤吉의 『大東合邦論』을 중심으로

『대동합방론』은 한일 간의 학계에서 「연대」와 「침략」이라는 이항 대립적 구도 속에서 한일 양국의 「대등」한 합방을 주장했다고 하는 설과⁶⁾, 반면에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데 있어 당시 일본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조선침략에 대한 긍정설로 엮볼 수 있다⁷⁾는 점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의 설이 현재에도 한일 양국 간의 학술적 해석상에서 찬반론에 얽히어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었다는 틀 속에서만 이 「대동합방론」을 해석한다면, 영원히 침략설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서로의 입장이 고정화됨으로써 다루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왜소화 될 우려가 생길 것이다.

다루이는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한 김옥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본 원고에서 다루이가 심상(心象)적으로는 조선과 어떤 연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것일까? 라고 하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해,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는데 있어 일본 주도의 아시아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프로세스를 역동적으로 해석해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이가 쓴 『대동합방론』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일본 지식인들이 본 타자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다루이는 당시의 사상가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유학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그의 사상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도 흥미진진한 점이 아닐까 한다. 그럼, 그 「연대」와 「멸시」라는 대립적 구도에서, 다루이가 의도했던 것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저자가 쓴 서문에 의하면, 『대동합방론』은 명치18년(1885)에 초벌로 쓴 원고가 완성되어졌다고 한다. 우연의 일치일까? 후쿠자와가 「탈아론」을 발표할 연도와 같은 해이다. 그러나 하옥 때문에 초고를 분실하고, 명치23년(1890)이

6) 楠原利治他, 「〈アジア主義〉と朝鮮—判沢弘〈東亞共榮圏の思想〉について」, p.24.

7)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観』, p.25.

되어서야 다시 초안을 잡아 「자유평등경문잡지」에 발표한 후, 명치26년(1893)에 『대동합방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겨우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 때, 이 책은 명치 중기 간행물로서는 드물게 조선인, 중국인(支那人)이 읽을 수 있도록 일부러 한문으로 썼다고 다루이는 강조하고 있다⁸⁾. 이 시기는 갑신정변(1884)의 실패로 인해 일본이 조선을 둘러싼 청나라와의 지배권 쟁탈전에서 후퇴되고, 청나라에 이어 서양열강 특히, 러시아가 조선에 등장함으로써 세력이 약해진 일본은 조선 지배권을 탈환하려고 초조해했던 때이며 국내적으로는 자유민권 운동이 쇠퇴하면서 국권론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창되었던 시대였다⁹⁾.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대동합방론』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동합방론』도 일본이 청나라를 배제하고 단독적으로 조선과의 동맹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을 가계야마가 쓴 현대판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아드리아인이 로마인과 동맹해 외국을 정벌했을 때, 어느 시인이 개선을 축하하는 시를 썼지만, 그 중 아드리아인을 로마인보다 우월하다는 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양국 간의 감정문제가 일어나, 결국 서로 싸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이다. 하물며 새롭게 건국할 나라의 명칭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요한다. 지금, 한일합방을 논함에 있어서, 양국 간의 과거 명칭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대동」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가지고 총칭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중략) 한일합방의 경우도, 제각각 일본, 한국의 과거 명칭을 가지고, 이것의 총칭으로서 「대동」의 국호를 사용한다면, 사태는 매우 평화스럽고, 그 사이에 감정문제 등이 일어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昔, アドリア人がローマ人と同盟して外国を征伐したとき、一人の詩人があつて凱旋を祝賀する詩を作つたが、その中にアドリア人をローマ人の上に置く詩句があつたため、このことを發して兩國間に感情問題が起り、遂に相戦ふやうな結果となつた。このやうなものである。いはんや新しく建国する国の名稱に於ては特に慎重を要する。今、日韓合邦を論ずるに當り、兩の旧号によらずして、もっぱら「大東」の一語を以て總名としようとする所以は、此のやうな点を考慮するが故である。(中略) 日韓合邦の場合も、各々に日本、韓国の旧名を用ひ、これの總名として「大東」の国号を名のやうにすれば、事件甚

8) 樽井藤吉, 影山正治訳, 『大東合邦論—現代訳』, p.1.

9)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p.25.

だ穩当であつて、その間に感情問題等の起る余地は無いと思ふ10)

이와 같이, 「일본/조선」이라는 양쪽의 국가명에 관계없이, 「대동」이라는 국호로 통일하는 것으로 감정문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두개의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의 주도권을 쥐는 측이 구(舊)회사명을 새로운 회사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회사 밖으로는 「연대」 적 합병으로 보이는 것처럼, 양국 간이 「연대」 적 관계 하에서 합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대」 라는 면에서 보면, 「국호가 해석된 의미」 부분에 한정되어, 대부분은 일본에 의해 조선을 흡수하는 형태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미 근대화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일본이 근대화에 늦어지고 있는 조선을 이끌고 가야한다는 온정주의의 인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요컨대, 다루이는 서구열강의 압박 속에서 우선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변혁」을 도모했으나, 결국 그 방법은 자국의 힘을 키워 조선을 동등한 파트너로서가 아닌 퍼터널리즘적인 성향이 강한 「자기보전」을 유지한 「자기변혁」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합병의 이해(利害)’에서 일본이 조선과 합방하는 문장에서 어떠한 이익과 손해가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조선은 빈약한 국가이다. (중략) 둘째는, 조선의 문화를 개방하지 않고, 온갖 장인들도 흥성하지 않으며, 국민의 지혜와 견식도 매우 뒤떨어져 있다. 지금 조선과 합병하는 것은, 현자가 우둔한 자에게 교류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셋째는, 조선은 국토가 중국과 러시아에 접해 있다. 지금 조선과 합병 한다면, 훗날 그 방위를 위해 대단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는 것

(一つには,朝鮮は貧弱の国(중략)二つには,朝鮮の文化を開けず,百工興らず,国民の智見も甚だおくれて居る。今これと合同することは,賢者が愚者に交りを求めるやうなものであると.三つには,朝鮮は国土がシナとロシヤに接して居る。今これと合同すれば,他日その防衛のために多大の費用を負担) (以下省略)(樽井藤吉、影山正治訳,1963)

본 논문에서는 셋째 항목까지밖에 인용하지 못했으나, 전부 여섯째 항목까지 있고, 넷째 항목부터는 일본이 조선과 합방함으로써 오히려 조선이 큰 이익을

10) 樽井藤吉, 影山正治訳, 『大東合邦論—現代訳』, p.14.

얻는다고 하는 반면, 일본은 국비를 사용하여 확실한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선은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있어 합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게다가 조선인들은 자주기성(自主氣性)이 부족한 민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이와 같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방하려는 이유는 조선과 합방함으로써 「부국」 할 수 있다는 점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다루이는 이와 같이 조선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철저하게 서구형 근대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유럽을 보면, 그 속국이 본토 면적의 수십 배에 이르는 것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인구가 실제로 세계 제5위의 대국이면서, 한 개의 속국도 가지고 있지 않다. 더욱이 영토 확장의 전망도 볼 수 없다. 거기에서 조선과의 합방에 의해 그 돌파구를 여는 것이고, 조선이 만약 적극적으로 일본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생존경쟁에 있어서 우승열패의 천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육강식」적인 세계정세를 언급하고 있다¹¹⁾. 또, 『대동합방론』이 발표된 시점은 1891년, 청일전쟁 앞의 일이다. 다루이는 이 책 속에서, 한일이 우선 합병하여 연방을 결성하고, 그것과 동시에 청나라와 동맹함으로써 백인세력의 침략을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 미약한 일본 국력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마토노(的野)¹²⁾는 사료하고 있다. 때문에, 청나라와는 합방이 아니라, 동맹이라고 하는 형태로 맺는 것을 주창했던 것이다. 게다가, 서구인은 「동방에는 바다와 육지에 두 개의 강국이 있다(東方二海陸に強國)¹³⁾」라고 칭하고, 그 강대국을 중국과 일본이라고 가리키며 이 양국이 있기 때문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황색인종의 위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확실히 조선을 한 단계 밑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책에서 다루이가 논한 결론은 백인종 서구열강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황인종의 아시아 모든 나라는 단결해 일어나야만 하고, 거기에는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형태로 합병해 「대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합방국을 만들어 그 대동국과 청나라와는 긴밀하게 손을 붙잡아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연대」라고 하는 것은 걸치레이고, 속내를 보면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해 서구열강으로부터의 침략에 준비해야만 한다고 하는 다루이의 사상이 노

11) 樽井藤吉, 影山正治訳, 『大東合邦論—現代訳』, p.65-66.

12) 的野半介(1914) 『江藤南白 下』, 南白顕彰会, p.289.

13) 樽井藤吉, 影山正治訳, 『大東合邦論—現代訳』, p.86.

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이의 논조는 서구열강에의 문명개화를 긍정하면서, 거기에서 국가의 팽창론—먼저, 자국을 강하게 하고 나서 해외에 식민지를 만드는 것이 외압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서구형 근대화—에 힘을 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다루이의 『대동합방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아시아 동맹론과 침략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얽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결국은 서양열강과의 만남에 의해 자국의 독립을 지키면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한 왕도의 길이 아닌 타자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패도의 길로 향하게 함으로써 후대에 왜곡된 아시아 주의를 심어주게 되는 씨알이 되어 버렸다.

3. 福沢諭吉의 조선관—「脱亜論」 중심으로

일본의 「근대화」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탈아론(脱亜論)」을 중심으로 표상되어져 왔다. 「아시아로부터의 이탈=근대화」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해, 코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유키치의 「문명」 「반개(半開)」 「야만」(「미개」)의 삼극구조의 논리를 인용해 「반개」는 「야만」 또, 「문명」에 대해서 「반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야만」을 전제하에 계속 날조하지 않는 이상 자기의 위치를 보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⁴⁾. 또, 훗타 요시에(堀田善衛)는, 근대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결별하는 것에 의해서 그 근대성을 획득한 것이다」¹⁵⁾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일본과 아시아라고 하는 이항 대립적 구도 속에서 일본은 서구식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식민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자원을 빼앗아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부국강병, 즉 대국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이고, 「야만」=「아시아」라는 도식 속에서 이웃나라에 위치한 조선이 명치 일본국가에게 가장 좋은 구실이 된 국가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탈아론」이 쓰인 것은 명치18년(1885)이다.

후쿠자와는 문명개화=자본주의화=서구화라고 하는 과정을 유일한 최상의 길이라고 생각했고, 서구문명을 기준으로 아시아의 시대적 착오를 비판했다. 그

14) 小森陽一, 『ポストコロニアル』, p.30.

15) 堀田善衛, 『インドで考えたこと』, p.156.

는 서구문명의 신봉자이자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벗어나 서구형 국가를 지향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이 점은 다루이와는 정반대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같이 할 여유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에서 벗어나 서양 문명국과 진퇴를 함께하고, 그 중국, 조선에 접촉하는 방법도 이웃나라라고 해서 특별한 배려를 두지 않으며 반드시 서양인이 대하는 식으로 처분해야만 하는 것. 악우를 친하게 사귀는 자는 함께 악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들은 마음 속으로 아시아 동방의 악우를 거절할 뿐이다.

(我国は隣国の開明を待て共に亜細亞を興すの猶予あるべからず、寧ろ、その伍を脱して西洋の文明国と進退を共にし、その支那、朝鮮に接する法も隣国なるが故にとて特別の会釈に及ば免ず、正に西洋人が之に接する風に従って処分すべきのみ。悪友を親しむ者は共に悪名を免かるべからず。我れは心に於て亜細亞東方の悪友を謝絶するものなり¹⁶⁾)

이와 같이,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속에서 위치하고 있지만, 정신적 면에서는 아시아의 「고루(固陋)」에서 이탈해 서구문명의 길로 가는 것. 즉, 하루빨리 아시아에서 벗어나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외우(外憂)의 위기감을 국민들 사이에서 조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국제관계는 완력의 세계인 것. 서양열강, 특히 영국의 중국·인도에 대한 가혹한 태도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에서는 오직 일본밖에 없다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자각시켰다.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드시 서양인이 그것에 대하는 식으로 처분해야만 한다는」 힘의 논리에 의해 조선·중국의 문명화를 위해 그 진보를 재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선과 청나라가 서양열강에 침략되어 그 여파가 일본에 미치게 되면 국가의 존부를 위협 받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이 형세를 막기 위해, 일본이 앞질러 이웃나라를 각성시켜 급속하게 그 자주독립을 확보해 고유의 문명을 진보시키고, 그 부강을 계몽시켜 지도 개선해서 서구열강이 동북아시아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한 충분한 힘을 기를 것인지 또는 그 나라에 일본 세력을 강하게 뻗치게 함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대동아로 국방의 경계를 확대시켜 동북아 안전

16) 福沢諭吉, 岩谷十郎/西川俊作編, 『福沢諭吉著作集—時事小言第8巻』, p.263-265.

의 보강 공작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명치10년(1877)대부터의 근본 사상이자, 당시의 「주류」였다. 그 때 자유당 급진파가 전자에 비중을 두었던 것에 대해, 국권론자는 후자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타케우치(竹内)에 의하면, 어느 면에서는 「후쿠자와 자신이 약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자각적 내셔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같은 약자인 이웃나라로의 동정이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¹⁷⁾」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심정적 아시아주의는 있었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때문에 김옥균에게도 구원의 손을 내밀었던 것은 아닐까? 즉, 일본이 생각해야만 하는 조선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들은 원래부터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해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은 오로지 조선 국민들을 문명개화로 유도함과 동시에 동양에 개명의 신세계를 열고자 하는 장기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3·5년 이래의 변란은 정치 사회의 보통의 작은 어려움이나 시련으로, 본래 예기한 것이라고 대담하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해 조선 교류의 이익은 이후 더 10년을 내다봐 받아들여져야 만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의 일에는 좌시 방관해 일제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경솔하게 결정할 수 없는 「오늘날의 큰 문제」이다.

(我われは素より朝鮮を独立国と認めて対等の条約を結び、其目的は専ら彼の国民を文明開化に導いて共に東洋に開明の新世界を開かんとするの長計なりしが故に、三、五年以来の変乱は政治社会の尋常の小波乱、固より期したるものなりと大胆に度胸を定め、朝鮮交際の利益は今後尚十年を期して収む可しである、それとも朝鮮の事には一切関係するなしとして、手を袖にして座視傍觀せんとするかは、軽々には決定しえぬ「今日の大問題」である¹⁸⁾)

이와 같이, 후쿠자와는 반드시 조선에의 노골적인 영토 진출을 주장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 속으로 품은 긴박감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 연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착오에 불과했던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요컨대 『대동아합방론』은 후쿠자와의 눈에는 너무 보기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결국 후쿠자와는 김옥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개혁이 3일로 끝나고(=갑신정변) 그 실패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후쿠자와

17) 竹内好, 「アジア主義」, 『現代思想大系』9, p.29-32.

18) 『時事新報』, 明治18.4.11付a, 「朝鮮国の始末も亦心配なる哉」

19) 竹内好, 「アジア主義」, 『現代思想大系』9, p.40.

는 조선의 문명화 길은 굳게 닫히게 됐다고 하며 포기해 버린다. 이 사건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주장을 펴낸 「탈아론」이 세상에 나오게 된 큰 계기가 됐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이후, 그는 문명을 무기로 「일본은 강대한 반면 조선은 작고 약하며, 일본은 이미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아직 미개하다(日本は強大いして朝鮮は小弱なり)、日本は既に文明に進て、朝鮮は尚未開なり²⁰⁾」라는 조선관이 머릿속에 강하게 새겨져 버리게 된다. 마토노에 의하면, 일본 자본주의의 사상가로서의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은 <부국강병>에 의해서 체계가 잡혀져 있다. 후쿠자와가 가령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그 때 논했던 것이 사실일지라도,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범위 안에서의 조선 ‘독립’을 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²¹⁾」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후쿠자와는 일본에 있어서 한층 노골적으로 조선을 향한 무력행사를 정당화시킨다.

원래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나라의 왕족인 이씨왕조에 있어서는 진심으로 안됐으며, 또 바로 그 신하인 귀족·사족에게도 매우 불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국민 일반의 이해 여하를 논할 때는, 멸망이야말로 오히려 그 행복을 크게 하는 방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扱この国がいよいよ滅亡するものとして考えれば、国の王家たる李氏のためには誠に氣の毒して、又その直接の臣下たる貴族士族のためにも甚だ不利なりと雖ども、人民一般の利害如何を論ずるときは、滅亡こそ寧ろその幸福を大にするの方便なりと云わざるを得ず²²⁾)

이와 같이, 조선 국민은 정부의 압제 정치를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러시아와 영국, 또는 조선에 밀려오는 다른 서구열강에 의해 식민지화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있어서 더 행복할 것이라고 진술한 논설이다. 여기에서는 극단적으로 후쿠자와는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 손을 끊어 조선과의 결별을 선언한 것처럼 보인다. 김옥균의 갑신정변 실패로 후쿠자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 한편 다루이도 김옥균에게는 지원을 했지만, 서양화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안중에는 오히려 일본을 아시아

20) 福沢諭吉, 岩谷十郎/西川俊作編, 『福沢諭吉著作集—時事小言第8巻』, p.207.

21) 楠原利治他, 「<アジア主義>と朝鮮」, 『歴史学研究』通号289, p.24.

22) 『時事新報』, 明治18. 4.11a, 「朝鮮国の始末も亦心配なる哉」

아의 지도자로 내세워 서구열강을 아시아에서 몰아내야만 한다고 하는 에도 말기의 존왕양이 사상을 엿볼 수 있다. 게다가 아시아로부터 벗어나 일본 독자적으로 서양과 손을 잡아 그 안에 융화하려고 하는 발상은 최후까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쿠자와는 「탈아론」 이후,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벗어나 아시아를 방관자 입장에서 보는 이미지가 강해진다. 후쿠자와의 생각은 일본이 아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문명 발전이 오히려 늦어지고,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그 결과 청나라와 같이 일본도 서구열강에 의해 식민지화가 된다는 두려움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시아로부터의 결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은, 결국 문명 발전을 무기로 해서 아시아를 멸시화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했던 점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확실히, 명치유신 이후 20년까지는 「정한론」이라든지, 「부국강병」이라든지, 심정적으로도 지식인 중에는 일본과 아시아와의 관계를 염두에 놓으면서 서구열강으로부터의 외압에서 벗어나는 것에 고심했다. 예를 들면,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다루어는 우선 조선과 동맹을 맺고, 다음에는 청나라와 손을 잡아 마지막으로 백인들의 아시아 침략에 대항해야만 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이념상으로는 개인을 국가보다 중요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국을 이용하거나 식민지를 만드는 것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후쿠자와 자신에 있어서는 「자기변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의 힘을 약자를 짓밟고, 종속시켜 거기에서 자원을 뺏어 자국을 풍요롭게 하는 식민지 논리로 종결시키고 말았다.

4. 청일전쟁 모노가타리 (物語) — 「時事新報」

청일전쟁 직전, 일본사회에서도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였고, 전쟁의 찬비여론도 확실히 있었다. 여기에서, 명치25년(1892)부터 「시사일보」에 게재된 사설을 중심으로 당시, 후쿠자와가 청일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분석하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명치25년(1892), 마쓰카타 마사요시(松方正義) 내각 사직과 제2차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 내각이 들어선다. 거기에서 민당(民黨²³) 추가예산안의 재부결이 이루어져, 해군의 확장비등이 소멸되었다. 이토로 하여금 「명치정부 말로(末路)의 일전(一戰)」이라고 인식시키며 지금까지 없었던 심각한 위기 속에서 성립된 내각이었다. 후쿠자와는 때마침 마쓰자카 내각 사직 직전의 7월19, 20일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민중의 반대론이 일부분의 과격론에 지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당이 종래의 정부에 반대운동을 도전하는 것 중, 가장 두려워해야만 한다(今の民間の反対論は一部分の過激論に過ぎざれば、彼の民黨なるものは、従来政府に反対の運動を試みたるものゝ中、最も恐るべきものにして²⁴)」라고 말하며 민중의 반대에 대한 정부 내의 경시론에 깊은 경계심을 드러내며 그 세력이 정치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강한 경계 의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대책마련으로 후쿠자와는 국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내정의 안정에 힘써야만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그 흐름 속에서, 조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나라한 표현으로 언급되어져 있다.

사회 일반의 눈과 귀를 국외로 돌리어, 국내의 인심을 일치시키는 외에 방책은 없다. (중략) 또는 인심을 국외에 돌리는 방편으로서 남양제도에 식민지를 개척하는 대책 외에 없다. 그 대책은 조금도 나쁘다고는 못하지만, 식민사업은 너무나 예사로운 계획으로 일시에 인심을 돌려 국내의 분쟁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효과는 적지 않은데다 우리들은 역시 기도(木戸)의 비책으로 조선정략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고, 단지, 그 수단은 결코 옛날과 달리, 해마다 몇 십만 엔의 돈을 무익한 전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양의 형세에 주목해 기민 활발한 거동에 게을리 하지 않고, 국내는 일반의 인심을 자극해 오로지 이 방향으로 집중시켜 국외로는 조선의 난국을 구함과 동시에 크게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社会一般の耳目を外に転じて、内の人心を一致せしむるの外に策ある可からず。(中略)或いは人心を外に転ぜんしむるの方便としては南洋諸島に植民地を開くの策もなきにあらず。其策敢て不可なるに非ざれども、植民の事業は余に尋常に計画一時に人心を転じて内の紛争を忘れしむるの效能少なる可べきが故に我輩は矢張り木戸の嚮倣て朝鮮政略を主張せざるを得ず、但し、其手段は全く旧時に異にして、年々幾十万円の金を無用の戦争を事せんとには非ず常に東洋の形勢に注目して機敏活発の挙動に怠らず、内は一般

23) 명치시대에 자유민권운동을 추진해 온 자유당과 입헌개진당 등의 민권파 각 당의 총칭.

24) 慶應義塾編, 『福沢諭吉全集』 13, p.412.

の人心を刺激して専ら此一方に集まらしめ、外は朝鮮国の難局を救ふとともに大に我国を利せんと欲するものなり²⁵⁾)

이와 같이, 국내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외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민중의 눈을 외부로 돌리는 것으로 국내 정부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를 명백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후쿠자와는 처음부터 조선을 침략·식민지화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 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탈아론」이 출판되기 전, 문명이라는 명목 하에 조선의 문명화를 돕기 위해, 김옥균을 지원하고 조선의 개혁을 도모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실행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후쿠자와는 조선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아오키(青木)의 문장에서 「당시,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라는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입각해서 보면, 그것은 실현가능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 때문에 후쿠자와는 일본의 독립만을 초점에 맞추어 논함으로써 서구열강에 대한 일본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한 아시아 관계를 생각했던 것이다(當時、被圧迫民族の連帯という考えかたは、全く存在しないわけではなかったが現実的に即してみれば、それは実現可能なことで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それ故に福沢は日本の独立如何だけに焦点を絞って論じ、欧米に対する日本の独立を保護するための対アジア関係を考えたのである²⁶⁾」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 당시 「피압박민족과의 연대라는 생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다케우치가 후쿠자와를 자각적 내셔널리스트라고 불렀던 것과 변함이 없다. 즉, 아시아와의 연대와 함께 서구열강으로부터 일본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후쿠자와는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벗어나 일본을 독자적으로 문명화시키는 것이 그 당시 후쿠자와가 선택한 정당한 길이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일본이 서구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국」= 「강병」, 나아가서 「식민지」라는 것은 세계정세를 염두 해 보아도 옳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국외로는 조선의 난국을 구함과 동시에 크게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후쿠자와에게는 「조선의 난국을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국민에게 오히려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우월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국민 형성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아니었을까? 간단히 말하

25) 慶應義塾編, 『福沢諭吉全集』13, p.414.

26) 青木功一, 「<時事新報>創刊年に至る福沢諭吉のアジア觀と欧米觀」, 『新聞研究所年』通号10, p.45.

자면, 국민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후, 청일전쟁은 명치27년(1894) 8월1일, 일본과 청나라의 선전포고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후쿠자와는 개시 직전부터 전쟁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우선, 그는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지지하는 사실을 썼다. 「우리들은 문명개화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함에 있어, 전쟁의 성패는 단순히 일본국의 이해뿐만 아니라, 동양문명의 번영과 쇠퇴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선도자는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오직 전진해 나갈 뿐(我れは文明開進の為に戦ふものにして、事の成敗は単に日本国の利害のみに非ず、東洋文明の浮沈に関する一大事なれば、其先導者たるものは百難を冒しても唯進むの一方あるのみ27))」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동양의 「문명화」라고 하는 사명감으로부터 전쟁의 정당성에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후쿠자와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부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과 당시의 국제질서의 중심인 서양열강을 향해 전쟁의 정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도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2003년, 3월 미국이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구실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그것을 「정의의 전쟁(war of justice)」이라고 부른 것처럼 국민에게 적극적인 참전의 구실을 만든 것이다. 결국, 후쿠자와는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이다(文野の戦争なり)」라고 단정 짓고, 다음과 같이 그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결코 양국 간의 전쟁이 아니다. 본래 일본국민은 중국인에 대해서 사적인 원한은 없다. 이것을 세계의 일등 국민으로서 인간사회에 보통의 교류를 원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들은 완강하고 사리에 어두워 상식적 도리로는 알지 못하며, 문명개화의 진보를 보고서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 진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무작정 우리에게 반항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어쩔 수 없이 여기게 이르게 되었다.

(決して両国間の争いに非ず。本来日本国民は支那人に対して私怨あるに非ず、敵意あるに非ず。之を世界の一国民として人間社会に普通の交際を欲するものなれども、如何せん、彼等は頑迷不靈にして普通の道理を解せず、文明開化の進歩を見て之を悦ばざるのみか、反対に其進歩を妨げんとして無法にも我に反抗の意を表したるが故に、やむを得ずして茲に及びたるのみ28))。

27) 慶応義塾編, 『福沢諭吉全集』14, p.515.

이와 같이, 그는 청일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전쟁으로 낙인찍고, 일본이 세계를 대표해 그 죄를 청나라에 추궁해야 하며, 따라서 조선 문명의 진퇴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국민에게 강하게 호소했다. 그 결과, 이 전쟁에서의 병력동원은 15만 명, 부상자는 1만3천명에 다다랐다. 전쟁이 끝난 직후, 후쿠자와는 「시사일보」에 「전사자의 대제전을 거행해야만 한다(戰死者の大祭典を挙行す可し²⁹⁾」라고 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거기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선택된 것에 대해 감사히 여기며 전쟁에 나가는 국민의 표상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때문에, 그는 천황을 이용해, 국민의 전사를 「명예의 전사」로서 널리 세상에 알리어 표상했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국가에 돌아와 친척·가족들에게 환영받으며 영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작위훈장을 받음으로써 돈과 명예로 표상되었다. 반면 전장에서 죽은 용사들은, 국민에게도 어떠한 환영을 받지도 못했다. 친척과 친족은 단지 살아서 돌아 온 병사들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릴 뿐 이었다. 거기에서 후쿠자와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특히 동양의 형세는 나날이 긴박해,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한다. 따라서 만일 다시 한 번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보인다면, 무엇에 의뢰해서 국가를 지켜야만 하는가. 역시 그 이전에는 없었던 용감하게 전진해, 죽음을 보고 돌아온 정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점점 이 정신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 이 정신을 기르기 위해 영광을 전사자 및 그 유족에게 표상해, 따라서 전장에 죽는 행복감을 느끼게 해야만 한다.

(特に東洋の形勢は日に切迫して、何時如何なる変を生ずるやも測る可らず満一不幸にして再び干戈の動くを觀るに至らば、何物に依頼して国を衛る可か。矢張り夫の 勇往無前、死を視る歸るが如き精神に依らざる可らざることなれば、益々この精神を養ふこそ護国の要務にして、之を養ふには及ぶ限りの光榮を戦死者並に其遺族に与へて、以て戦場に斃るゝの幸福なるを感ぜしめざる可らず³⁰⁾。

라고 주장하며, 후쿠자와는 국가를 위해 기뻐하며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국민정신을 만들어내려고 했다. 결국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제국

28) 慶應義塾編, 『福沢諭吉全集』 14, p.491.

29) 慶應義塾編, 『福沢諭吉全集』 15, pp.320-322.

30) 慶應義塾編, 『福沢諭吉全集』 15, p.321.

주의로의 길을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을 위해서는 국민 공동체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했다. 나아가서는 ‘국가는 우리 자신들이 지킨다’ 라고 하는 국민 동일화와 함께, 타국으로의 팽창주의의 언설이 동시병행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치 시대에 접어들어 가장 중요시된 것은 근대적 국민국가를 만들어 하루빨리 서구열강과의 불평등 조약에서 벗어나 서구열강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고, 청일전쟁을 계기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그 이후, 일본 근대국가는 완전하게 유럽과 똑같은 국가 만들기에 몰두하면서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서양화를 목표로 함으로써 「문명」의 명분하에 지식인들과 위정자들 사이에 아시아를 멸시하는 관념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사일보」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5. 「정의(justice)」로의 길—「万朝報」

청일전쟁을 앞두고, 우치무라간조가 의전론자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닌 저널리스트였다. 게다가, 저널리스트로서 평론활동을 한 것은 1893년부터 1903년까지의 10년 동안이었다³¹⁾. 청일전쟁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드물게도 큰 지지를 받은 유일한 전쟁이었고, 우치무라도 그 중 예외가 아니었다. 청일전쟁이 시작된 명치 27년 (1894) 8월, 우치무라의 『국민의 친구(國民の友)』에 「Justification of the Corean War」이라고 하는 영문으로 쓴 기사를 게재해 이듬해 9월, 그 영문을 일본어 「정의를 위한 청일전쟁(日清戰爭の義)」이라고 번역돼 같은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청일전쟁에의 찬성을 표명했다. 이와 같이, 우치무라도 처음에는 청일전쟁에 대해서 열렬한 의전론자였다. 서구인을 향해서, 이 전쟁이 「조선의 독립과 보안을 유지하고(朝鮮の獨立と保安を維持し)」,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들과 협력해서 동양의 개혁에 종사해야 한다(吾人と協力して東洋の改革に従事せしむる³²⁾)」라고 주장하며, 정의의 전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치무라는 후쿠자와와 같이, 단순히 「문명화」라는 명분하에

31) 武市英雄, 「ジャーナリスト内村鑑三の対韓観—日清・日露戦争を中心に」 p.8.

32) 内村鑑三, 『内村鑑三全集』1, p.308.

청일전쟁의 정당성을 호소한 것만은 아니다. 다음 문장을 읽으면, 그의 청일전쟁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우리들은 조선 전쟁이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 개전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는 도리의 전쟁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도리라는 것은 합법성이 모든 본질의 궤변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합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심에 있어서의 도리. 즉, 이 전쟁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도리의 본질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We believe that the Corean War now opened between Japan and China to be such a war, —I mean, a righteous war. Righteous we say, not only in legal sense, for legalities can be manufactured an sophistries of all kinds, but righteous in moral sense as well— the only kind of righteousness that can justify any war.³³⁾)

이와 같이, 만약 후쿠자와가 청일전쟁을 합리적 논리에 입각해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치무라는 윤리적 관념에 근거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이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 가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명의 진보에 있어서 낙오된 국가는 문명이 진보된 국가가 구해주어야만 한다는 「도의적 논리」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청나라는 조선 문명의 진보를 방해하며 여기에 순응하는 조선을 끝내 「은둔의 국가」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은 세계적 진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행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결국, 청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며 막대한 배상금이 일본에 지불되었다. 또, 거기에서 일본의 전쟁목적이 단순히 조선의 영토보전과 전쟁비용의 배상에 멈추지 않고 중국의 여순, 대련을 점령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결국, 우치무라는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청일전쟁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고백하고, 「時制の觀察 (万朝報刊行会編,1983) 34)」를 써 신랄하게 일본국가의 죄를 규탄하

33) kanzo Uchimura, 「justification of the Corean War」, 『内村鑑三英文著作全集』 5, p.67.

34) 「万朝報」, 明治30年 3月15日

게 된다. 또한, 「국민은 위선자이다(國民は偽善者なり)」 「애국자의 꼭두각시이다(愛國者の人形なり)」 「자화자찬하는 야만적 국민(自贊狄國民)」 등등. 그리고 「사람들은 일제히 모두 대국 일본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오로지 소국 일본이라고 주창하기를 바란다(人は皆齊しく日本の大を称ふ、余輩は惟り其小を唱へんと欲す)」 라고 「작은 일본(小さな日本)³⁵⁾」 을 찬양해, 「대국」 으로의 길을 걷고 있는 국가와 대치하며 남은 생애를 전쟁에 반대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여기에서, 처음에는 우치무라도 다루이와 후쿠자와와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에 의한 「자기변혁」 이 일어났으나 조선을 일본의 「자기보전」 을 위한 타자가 아닌 조선인들의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부정」 을 통해 「자기변혁」 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기변혁」 에는 타자를 억압하는 「폭력성」 이 아닌, 타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연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청일전쟁 때 「요로즈초호」 는 「헌금 합시다. 헌금 합시다(獻金せよ、獻金せよ)」 라고 하는 표제로, 「드디어 청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의와 용기 있는 동포 여러분, 적극적으로 헌금해 약간의 준비라도 도웁시다.(日清愈戦端を開けり義勇なる同胞者君、奮って献金し軍費の幾分を助けよ)」 라고, 국민들에게 전쟁의 협력을 「시사일보」 와 마찬가지로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초혼제(招魂祭)」 를 통해 전장에서 죽은 병사들의 유족들을 도쿄에 초대해 그들의 희생을 「명예로운 죽음」 이라고 칭하며 천황을 앞에 내세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국민 만들기³⁶⁾」 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요로즈초호」 도 청일전쟁 때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요로즈초호」 는 청일전쟁 후, 전쟁찬미에서 비전문자로 전향한 우치무라를 중심으로, 코토쿠 슈스이(幸徳秋水),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들이 전쟁 반대의 주장을 펴, 들쭉거리는 전쟁찬미에 저항했다. 거기에서 우치무라는 「요로즈초호」 안에서 「주의에 피폐한 사회(主義の腐れ易き社会)」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본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中略) 주의도 마찬가지로, 일본국에 있어서 아무리 신성한 주의라 하더라도 3년보다 길게 그 신성을 유지할 수 없다(主義亦然り、日本国に於て如何に神聖たる主義と雖も三年より長くその神聖を維持する能はず。)³⁷⁾」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일본의 여론은 전

35) 「万朝報」, 明治30年 3月15日

36) 「万朝報」, 明治27年 7月29日

37) 「万朝報」, 明治36年 8月13日

쟁찬미로 흘러가는 경향으로 국가가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정함에 따라 사장인 쿠로이와 루이코(黒岩淚香)도 전쟁 반대의 깃발을 내리게 되고, 전쟁은 결국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고 주장을 내세우며 우수한 전사를 잃는 것에 슬픔이 복받쳐 오른다고 말했다. 즉, 「국가의 전쟁은 즉, 자기 자신의 전쟁이라는 긴장감을 갖게 하기 위해, 국가는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전쟁에 일제히 어 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남김없이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國家の戦ひは自己の戦ひと思ひ爲し、拳国力を一つにして戦に関する一切の手段を遺漏無く尽そうと38)」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요로즈초호」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러일전쟁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치무라, 코토쿠, 사카이들이 있다. 그들의 전쟁 반대운동은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의 시선을 의식해 처벌에는 이르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에 이겨야만 하기 위해 특히, 영국과 미국에게 막대한 군사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내 여론을 강제적으로 탄압하는 야만스러운 국가라고 하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서구에 주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곤란한 입장을 피하고 싶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자마자 국가에 반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반역사건으로써 사형선고를 받은 것은 그 당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천황 암살사건의 죄명을 씌워 그 사람들을 사형시킨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일전쟁까지의 흐름을 다루는 것으로 하고, 러일전쟁 때의 일본 국내 동향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로 돌리고자 한다. 단, 청일전쟁 때 남겨진 언론의 자유가 러일전쟁 후, 일본 국가가 대국주의에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탄압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된다.

6. 나가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화 속에 조선은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적 타자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서양열강이 아시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야

38) 「万朝報」, 明治36年 8月13日

만의 국가라고 날조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것을 내면화, 내재화해 조선을 야만의 국가로 날조해 문명화라는 그 시대의 보편성을 가지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게 된다.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신문과 잡지였다.

한편, 베네딕 앤더슨(Anderson, Benedict)의 『Imagined communities』 안에서, 언어와 출판은 인간에게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³⁹⁾.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국가가 만들어낸 식민지 언설은 식민지 국민들에게 의해 타자의 이미지 고정화되어 버린다. 거기에서는 「자기변혁」은 일어나지 못하고 철저한 「자기보전」에 의해 타자의 문화적, 역사적, 인종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깨부수기 어려운 단단한 암석과 같은 덩어리로 존재해 버린다. 모토하시 테쓰야(本橋哲也)는 이와 같은 식민지 언설을 「탈구축해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이미지로부터 벗어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타자의 문제를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⁴⁰⁾」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일 양국 사이의 식민지 언설은 정치가와 지식인들로부터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었다. 그 중에서도, 명치 시대의 「시사일보」와 「요로즈초호」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단, 본 논문에서는 명치시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과의 관계 속에서—「연대」 「멀시」—가 서로 끊임없이 격투해 온 과정을 명확하게 논증해 좀 더 역동적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해석함으로써, 한일 근대사를 단순히 이항 대립적 구도라고 하는 틀 속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을 배제함으로써 현재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입장에서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양국 간의 역사인식에 있어서 교차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하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그 힌트 안에서 가장 중요 키워드가 「자기보전」에서 「자기변혁」으로의 사상적 전환이 아닐까 한다. 전후 70년간 역사 인식을 논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의 인식은 너무 오랫동안 고

39) 白石さや/白石隆記, 『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ズムの起源と流行』, p.63.

40) 本橋哲也,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 pp.2-3.

정된 지식과 정치적 이념 속에서 논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점점 국가 간 국경의 벽이 무너지고, 국가 간 영역을 초월해 다양화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양국 사이의 역사 인식에 접근해 갈 때가 온 것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도 일본의 근대사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강제적 또는 전략적으로 지식인들 자신의 내면 속 격투를 통해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을 다이나믹하게 그림으로써 근대화와 함께 구축되어진 조선에 대한 편견 된 표상을 이겨내는 것도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역사 인식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재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필자는 믿고 싶다.

【참고문헌】

- 青木功一(1978.02) 「<時事新報>創刊年に至る福沢諭吉のアジア觀と欧米觀」(『新聞研究所年』通号10), 慶應義塾大学新聞研究所, p.45.
- Kanzo Uchimura(1979a) 「justification of the Corean War」 『内村鑑三英文著作全集 第5卷』(3版)(教文館), p.67.
- (1980b) 『内村鑑三全集 第1卷』, 岩波書店, p.308.
- 鹿野政直(2005) 『近代国家を構想した思想家たち』, 岩波書店
- 楠原利治他(1964.6) 「<アジア主義>と朝鮮—判沢弘<東亜共栄圏の思想>について」(歴史学研究会編 『歴史学研究』通号289), 青木書店, p.24.
- 慶應義塾編纂(1969) 『福沢諭吉全集 第13卷~第15卷』, 岩波書店, 412, 414, 491, 320-322, p.321.
- 小森陽一(2001) 『ポストコロニアル』, 岩波書店, p.30.
- 佐藤秀夫, 山本武利編著(1996) 『日本の近・現代史と-歴史教育』, 筑地書館
- 『時事新報』(明治18.4.11付a) 「朝鮮国の始末も亦心配なる哉」
- (明治18.8.13付b) 「朝鮮人民のためにその国の滅亡を賀す」
- 樽井藤吉、影山正治訳,(1963) 『大東合邦論—現代訳』, 大東塾出版部, 1, 65-66, p.86.
- 竹内好(1963) 『現代思想大系 第9卷』, 筑摩書房, 29-32, p.40.
- 武市英雄(1985) 「ジャーナリスト内村鑑三の対韓觀—日清・日露戦争を中心に」(上智大学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編 『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通号15), p.8.
- 高橋康雄(1989) 『物語・万朝報—黒岩流香と明治のメディア人たち』, 日本経済新聞社
- 田中彰(2005) 『近代日本の歩んだ道—「大国」から「小国」へ』, 人文書館
- 白石さや/白石隆訳(1997) 『想像の共同体—ナショナリズムの起源と流行(Anderson, Benedict 1987 Imagined communities), NTT出版, p.63.
- 旗田巍(1969)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p.25.

福沢諭吉, 岩谷十郎・西川俊作編(2003)『福沢諭吉著作集—時事小言第8券』, 慶応義塾大学出版会, 207, pp.263-265.

堀田善衛(1957)『インドで考えたこと』, 岩波書店, p.156.

的野半介(1914)『江藤南白 下』, 南白顕彰会, p.289.

松本三之介(1968a)『日本における近代化の問題』, 岩波書店

————(1996b)『明治思想史—近代国家の創設から個の覚醒まで』, 新曜社

本橋哲也(2005)『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 岩波書店, pp.2-3.

万朝報刊行会編(1983)『万朝報 第21巻・第32巻・第33巻』, 日本図書センター

논문 투고 일자 : 2015. 12. 31

논문 심사 일자 : 2016. 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6. 2. 4

<要旨>

明治時代の知識人たちの朝鮮認識
- 「連帯」と「蔑視」の 葛藤の中で -

羅義圭

現在でもなお、日本と韓国の間には様々な摩擦や軋轢を生む原因として、朝鮮像の問題は大きく関わっている。例えば、朝鮮に対する文化的記憶とは主に、「遅れている」「野蛮」など蔑視のイメージとして描かれている。こうした現状は未だに日本と韓国がお互いの文化に対してよく理解していないことがその原因であると思われる。

このように「近代の朝鮮観」に関する研究は、旗田巍によると韓日会談への取り組みという混迷した状況における日本人の朝鮮観に対する研究から始まったという。しかし、このような研究は、主に今まで書き残された書籍に見える朝鮮観を照らし合わせ、そのなかで朝鮮観を抽出して論ずることにとどまっていると彼は主張している。筆者はそこからヒントを得て、その朝鮮観を踏まえた上で明治維新から清日戦争までの日本が歩んだ「近代」の道を考察したのである。

そのなかでも明治国家を再照明・再認識することで、朝鮮に対する「連帯」と「蔑視」が互いに背中合わせに絡み合う中で、清日戦争の勝利とともに日本が朝鮮に対して屈折した精神構造を持つようになったプロセスが浮彫りになると考えるものである。

Korea recognition of intellectuals of the Meiji era
-Between the tangle of "a solidarity" and "the contempt"-

Ra, Eui-Kyu

Even now the problem concerning the Korean image is largely reflected by historical differences which produced a variety of fiction and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For example, Japan's cultural image of Korea is mainly painted as being "backward" and "savage". A major reason for this is evident in the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that exist to date.

In this way, according to Takashi Hatada, the modern image of Korea began with research by Japanese concerning the Korean image in the midst of confusion surrounding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However, he claims that until present such research is merely a comparison of the Korean image appearing in Japanese publications.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in mind, I decided to explore Japan's modern history from the Meiji restoration to the Sino-Japanese war based on the Korean image. Due to this mutual conflict of confused "solidarity" and "contempt", it is thinkable that Japan's distorted mentality of Korea became evident with Japan'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